

###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과간호2팀이 최근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개 차수에 총 5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허리, 손목, 어깨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8월 29일 외과간호2팀 직원들이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 지나호 정답



제731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나의 성장 이야기 -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외과간호1팀 이정빈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10월 1일(화)  
발표 제735호(2024년 10월 15일 발간)

###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이은숙(중앙공급팀)

캔버스 북커버  
강미성(수술간호팀)  
김수정(심장검사팀)  
손소영(중앙공급팀)  
한선형(외래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송범섭(교육수련팀)  
신화정(병리팀)  
이지원(AGS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박창동(응급간호팀)  
서경진(영상의학팀)  
이지수(특수검사팀)  
정가희(내과간호1팀)  
정문영(간호교육행정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 서울아산병원

VOL.733 2024. 9. 15

Asan Medical Center Heart Institute  
9번째 NEJM

2003 2008 2010 2011 2012 2015 2020 2022 2024

ORIGINAL ARTICLE  
Edoxaban Antithrombotic Therapy for Atrial Fibrillation and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M.S. Cho, D.Y. Kang, J.M. Ahn, S.C. Yun, Y.S. Oh, C.H. Lee, E.K. Choi, J.H. Lee, C.H. Moon, C.M. Park, H.D. Choi, E.H. Park, S.M. Park, J. Haeng, K.O. You, Y.C. Cho, J.H. Kim, Y.W. Chung, E.C. Jin, D. Kwon, K.H. Kim, S.J. Park, D.W. Park, and G.B. Nam, for the EPIC-CAD Investigators\*

ABSTRACT  
BACKGROUND Single-anticoagulant recommendations from clinical guidelines, data from randomized trials on a long-term antithrombotic treatment strategy for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nd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are still lacking.  
OBJECTIVE We conducted a multicenter, open-labe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edoxaban monotherapy with dual antithrombotic therapy (aspirin plus single antiplatelet agent)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nd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The primary outcome was a composite of death from any cause,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systemic embolism, unplanned urgent coronary revascularization, and major bleeding or clinically relevant nonmajor bleeding at 12 months. Secondary outcomes included a composite of major bleeding events and the safety outcome of major bleeding or clinically relevant nonmajor bleeding.

### 심방세동 있는 관상동맥질환자 최적 치료법

우리 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9번째 논문을 게재했다.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가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NEJM에 논문을 게재한 이후 'Asan Medical Center'의 이름으로 9번의 NEJM 기록을 쓴 것이다. 국내 우수 병원들이 NEJM에 게재한 논문 수가 최대 3편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이며, 우리 병원의 높은 임상·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 심장내과 남기병·박덕우 교수, 조민수·강도윤 부교수팀은 NEJM에 게재된 이번 연구를 통해 심방세동과 관상동맥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의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을 낮추는 최적의 약물치료법을 찾아냈다. 사진은 지금까지 심장병원 의료진이 NEJM에 게재한 논문. (관련기사 2면)

- 03 NEWS 하마중 1년 내 치료해야 재발률 낮아
- 10 AMC 리얼스토리 나의 네 번째 심장

- 14 나의 성장 이야기 최고의 간호를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 18 감사우체통 엄마와 아이 모두를 향한 진심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 항응고제 단독복용의 효과 입증

사망·뇌졸중·출혈 발생 56% 낮아... “치료 지침 바꿀 중요한 연구 결과”



심장내과 남기병 교수가 9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 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이 전 세계 의사들의 임상치료 교과서로 불리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9번째 논문을 게재했다. NEJM은 피인용지수(IF)가 96.2로 네이처(50.5)나 사이언스(44.7)보다 높은 최고 권위의 저널이다.

심장병원은 2003년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NEJM에 논문을 게재한 이후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부정맥질환을 주제로 꾸준히 논문을 게재해 왔다. 이를 통해 실제 전 세계 임상 의사들의 진료 및 치료 지침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러한 성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압도적인 연구 업적이며, 단일 기관에서 NEJM에 9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과다.

심장내과 남기병·박덕우 교수, 조민수·강도윤 부교수팀은 심방세동과 관상동맥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에게 심방세동 치료제만 복용하게 한 결과, 관상동맥질환 치료제와 심방세동 치료제 모두 복용한 집단에 비해 1년 뒤 사망·뇌졸중·심근경색·출혈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해 더욱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보조 펌프에 해당되는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가늘게 떠는 질환이다. 관상동맥질환 환자 10명 중 1명이 심방세동도 함께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은 동맥경화로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혈소판제로 치료하고, 심방세동은 심장내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제로 치료한다. 두 약물의 기전은 다르지만 모두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환자가 두 약제를 함께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최적의 치료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고위험 심방세동과 안전형 관상동맥질환이 같이 동반된 환자 1,040명을 무작위 배정한 뒤, 항응고제를 단독치료한 집단 524명과 항응고제·항혈소판제를 모두 이용한 복합치료 집단 516명으로 나누어 1년 뒤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뇌졸중·심근경색·출혈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복합치료 집단에서는 16.2% 발생한 반면, 단독치료 집단에서는 6.8% 발생해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약 5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혈사건이 약 66%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및 비주요 출혈사건이 복합치료 집단에서는 14.2% 발생한 데 비해 단독치료 집단에서는 4.7%에서 발생했다. 사망이나 뇌졸중·심근경색과 같은 주요 허혈성사건 발생률은 복합치료 집단 1.8%, 단독치료 집단 1.6%로 큰 차이 없이 모두 안전했다.

남기병 교수는 “그동안 심방세동이 동반된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최적 치료 방침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기관 연구를 통해 치료 방침을 바꿀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박덕우 교수는 “환자 임의로 복용하는 치료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최적화된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NEJM에 게재되는 동시에 9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심장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4)의 메인 세션 ‘하라인’에서 발표됐다.

## 하마종 1년 내 치료해야 재발률 낮아



이정현 교수

허나 턱 밑의 침샘이 막혀 타액이 물혹처럼 고이는 낭종인 하마종은 수술을 해도 재발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에탄올을 주입해 치료하는 에탄올 절제술을 우선 시행한다. 영상의학과 이정현 교수팀은 하마종 발병 후 1년 내에 에탄올 절제술을 시행해야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병원에서는 하마종 에탄올 절제술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한 환자 57명을 추적 관찰해 재발률과 위험 요인을 심층 분석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26.4세였으며 추적 기간은 평균 57개월이었다. 그 결과, 에탄올 절제술을 받은 하마종 환자 중 33%가 치료 후 재발을 경험했으며 이 중 86%는 치료 후 1년 이내에 첫 재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조기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임이 증명됐다.

특히 에탄올 절제술을 받은 시점이 하마종 재발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마종 발병 후 1년 이상 지나 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발병 후 1년 내에 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재발 위험이 4.17배 높았다. 또한 하마종의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졌다. 연구의 최초 모집환자 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cm 미만의 경우 2년 내 재발하지 않은 환자가 50%였던 반면, 5cm보다 같거나 큰 경우엔 2년 내 재발하지 않은 환자가 24%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정현 교수는 “에탄올 절제술이 하마종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했지만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자마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에 최근 게재됐다.

## 전립선암 혁신 치료제 ‘플루빅토’ 도입



암병원 테라노스틱스센터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여할 방사성의약품을 준비하고 있다.

암병원 테라노스틱스센터가 전립선암 혁신 치료제 ‘플루빅토’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난치성 전이암 환자 치료에 나선다. 플루빅토는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차세대 표적 방사성의약품이다. 루테튬(<sup>177</sup>Lu) 방사성동위원소가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플루빅토 치료는 진단과 치료를 결합한 테라노스틱스 접근법

을 기반으로 한다. 먼저 PSMA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해 전립선암 맞춤 PET/CT 검사를 진행한다. 우리 병원은 2020년 11월 국내 최초로 전립선 암세포의 PSMA 발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갈륨(<sup>68</sup>Ga)-PSMA-11’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로 생산 등록하고 전립선암 맞춤 PET/CT를 진료에 활발히 적용해 왔다.

PET/CT 검사 결과 PSMA 과발현이 확인되면 플루빅토를 투여해 치료를 진행한다. 플루빅토는 2022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5월 식약처의 정식 시판 허가를 받았다. 허가 대상은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상계 항암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립선암 환자들로 기존 항암치료에 실패한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이 될 전망이다. 핵의학과 이동윤 조교수는 “이번 플루빅토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치료 부작용이 적은 테라노스틱스 치료 영역을 전립선암까지 확대하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로봇수술 업무협약 체결



게리 굿하트 인튜이티브서지컬 CEO, 박승일 병원장, 최용범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9월 5일 수술로봇 기업인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17년 상호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임상 술기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국제 로봇수술 교육기관인 우리 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신제품 파일럿 연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봇수술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안센과 임상연구 협력 강화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 이지현 한국안센 글로벌임상시험 총괄상무(왼쪽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국내법인인 한국안센 경영진이 9월 11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우리 병원은 지난 8월 한국안센과의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임상시험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협업을 위한 별도 관리자 지정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의 세부 협력 방안과 향후 임상시험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우리 병원의 연구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신약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 심포지엄



9월 10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 심포지엄이 9월 10일 동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 및 비임상 신약개발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원내 신약개발 분야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 동향 ▲전장 유전체 서열 분석과 항암신약개발 ▲혈관질환의 새로운 병인 연구에 근거한 신약타겟 발굴 ▲중개연구에서의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고객칭찬·협업 우수상



고객칭찬 최우수상을 받은 내과간호2팀 가정은 주임(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동료들이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객칭찬·협업 우수직원 시상식이 9월 11일 진행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은 내과간호2팀 가정은 주임이 받았고, 고객칭찬 우수상은 암병원간호2팀 공혜원 과장 등 18명이 수상했다. 협업 우수상은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 등 6명이 받

았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수상자는 30만 원, 우수상 수상자는 2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상장과 함께 꽃다발과 기념품 등이 전달됐다.

- 고객칭찬 최우수상** 내과간호2팀 가정은  
**고객칭찬 우수상** 운영지원팀 공혜원, 위장관외과 김범수, 암병원간호2팀 김시안, 외과간호2팀 김안진, 핵의학팀 김주란, 암병원간호1팀 김진선, 외래간호팀 김희경, 방사선종양팀 박다영, 응급간호팀 박예람, 건진운영팀 양지원, 성형외과 오태석, 내과간호1팀 이가혜, 암병원간호2팀 이예경, 영상의학팀 이은정, 외래간호팀 이지윤, 안과 이훈, 외과간호1팀(164유닛) 정지수, 외래간호팀 추정민  
**협업 우수상** 소화기내과 김도훈,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건강의학과 안명희, 영상의학팀 유용민, 의공팀 윤희구, 내과간호1팀 이창용  
 (성명 가나다순)

### 신입직원 교육



9월 5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방문한 신입직원들이 정주영 설립자의 어록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입직원 교육이 9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

육에는 9월에 입사한 간호직 60명, 사무직 5명, 보건직 4명, 약무직 4명 등 총 73명의 신입직원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현재와 미래 ▲AGS의 이해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우리 병원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학습하고 직무역량을 향상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승일 병원장은 신입직원 환영식에서 "최고의 의료 수준을 바탕으로 고난도 중증 환자를 치료해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환자경험평가 '배려와 공감'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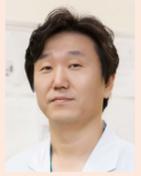
우리 병원이 4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기존 전화 조사에서 모바일 웹 조사로 전환해 더 많은 환자 의견을 수집했으며,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45곳을 포함해 374개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성인 6만 4,24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우리 병원은 전 영역에서 지난 평가보다 점수가 상승했고, 특

히 환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포함된 항목인 ▲존중·예의, 경청 등 간호사 영역(92.3점) ▲존중·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등 의사 영역(86.7점)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및 부작용 설명,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등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90.4점) ▲입원경험 종합 평가, 타인추천 여부 항목을 설문한 전반적 평가 영역(94.3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 정

정성문 P실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정성문 P실장이 최근 2024년 환자안전 제도 공헌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 실장은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과 환자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하정 조교수 최우수상



마취통증의학과 김하정 조교수가 8월 31일 열린 대한부위마취학회 제7차 학술대회에서 '관절경 보조 하 삽입된 카테터를 이용한 지속적 견갑상신경 차단술과 초음파 유도 하 삽입된 카테터를 이용한 지속적 상완신경총 상부줄기 차단술의 효과 비교: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철호 조교수 연구지원사업 선정



정형외과 김철호 조교수가 대한정형통증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김 조교수는 '정형외과 고관절 수술에 있어 ERAS(Early Recovery After Surgery) 프로토콜의 효용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우리 병원이 9월 10일 열린 2024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리 병원은 2013년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안유라 임상전임강사 젊은연구자상



영상의학과 안유라 임상전임강사가 8월 24일 일본 오츠시에서 열린 제11회 폐기능영상 국제 워크숍에서 '폐암에서 고형 성분의 부피배가 시간: 전체 종양의 부피배가시간과의 상이한 의미'를 주제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한혜원 약제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표창



한혜원 약제팀장이 9월 3일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 팀장은 의약품부작용 관련 활동과 피해구제 제도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소연 유닛 매니저 우수상



진료협력팀 김소연 유닛 매니저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김 유닛 매니저는 병원 이용, 진료 상담, 의료비 지원 등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 사

보직임명

Table listing various medical departments and their staff appointments, including titles like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nd Instructor.

환자안전 세미나



9월 2일 열린 환자안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자안전 세미나가 9월 2일 동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제16회

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환자안전 바로보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낙상 발생 현황 및 예방 전략 ▲부서별 낙상 예방 활동 사례 ▲낙상 분쟁 사례 및 대처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부서별 질향상 및 환자안전 전문가(QPS 히어로) 및 감염관리 안전문화 활동 사례가 소개됐다. 환자안전문화 향상 격려제도 시상에서는 ▲일반촬영1 유닛 등 4개 부서가 환자안전사례 보고 향상부서 ▲감마영상 유닛·IMR 유닛 등 2개 연합팀이 베테 솔루션 ▲수술간호팀 양은선 과장 등 4명이 굿 캐치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이 달의 후원자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categorized into 'Individual and Corporate' and 'Staff and Family'.

- 2024년 8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내내 6207)

## 뇌사추정자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황신 장기이식센터소장

보건복지부는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해 이식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2011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법)」을 개정해 뇌사추정자 신고를 법제화했다. 장기법에 따르면 뇌사추정자는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거나, 원인은 확실하나 치료 가능성이 없는 뇌 병변이 있거나, 뇌간 반사검사 중 5개 이상의 항목에서 반사가 없는 자로 정의한다.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구득기관의 장은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뇌사추정자 신고제 도입 후 한 해 400건 미만이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2016년에는 573건까지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2022년 405건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2023년 483명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만 약 3,000명이 이식 대기 중 사망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매일 8명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장기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부문에 '뇌사추정자신고 수' 지표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부터 신규 평가 항목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뇌사추정자 발생 시 담당의는 장기이식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장기이식센터가 이를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면 뇌사추정자 수로 집계된다. 의료기관 내 전체 응급실은 물론 성인

과 소아중환자실 병상수 중 신고된 뇌사추정자 수의 비율을 0.5점에서 최고 2.0점까지 4구간으로 점수화해 의료질평가에 반영한다. 뇌사기증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우리 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뇌사추정자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3년 AMIS 3.0에 '뇌사추정자 신고' 화면을 개발했다. 유선으로 신고하던 번거로운 절차를 클릭 몇 번에 끝나도록 개선했다. 암 진단을 받았거나 연명의료 중단 상태라도 뇌사추정자 기준에만 부합하면 신고 가능하다. 또한 전산으로 실시간 뇌사추정자 스크리닝을 진행한다.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환자가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는 경우 담당 의료진과 연계해 기증자 가족에게 장기기증 절차를 안내하고 가족 동의를 구하고 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항상 세심한 면담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 병원 뇌사추정자 신고 수는 작년 15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모든 구성원이 뇌사추정자 신고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렇게 모인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면 더 많은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 받는 환자도 많아질 것이다. 9월 9일은 1년 중 단 하루라도 환자의 아픔과 고귀한 생명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지정된 장기기증의 날이다.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아픔과 생명 나눔의 큰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 “한국에서 온 선생님, 아산테 사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보낸 1년 3개월. 오지를 찾아 다니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우리 병원에 입사해 임상병리사로서 그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주인공인 **진단검사의학팀 이현진 사원**을 만나 탄자니아에서의 의료봉사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실>



약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원받은 활동비로 파티션을 구입해 검사실 내 공간도 잘 구분하고, 낡은 설비도 최대한 깔끔한 것으로 교체했다. 조금이나마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 현지 임상병리사를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했다. 채혈 방법, 미생물 배양법, 감염관리 지침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교육하고 실습도 했다. 총 120명이 참가했는데 그중엔 교육을 듣고 싶다는 찾아온 대학생도 있었다. 배우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인상 깊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현지에서 봉사 중인 우리나라 외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과 팀을 꾸려 의료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일정상 기획안 작성, 의사 및 팀원 섭외, 장소 선정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주뿐이었다.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고 오자'는 목표 하나로 뚝뚝 뭉쳐 일정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사흘 동안 1,000여 명의 주민에게 진료와 검사, 간단한 수술 등을 진행했다. 진료소를 찾은 아이들이 환한 미소와 함께 "아산테 사나(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탄자니아에 오길 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포부는

지난 2월 말 탄자니아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6월부터 우리 병원 체혈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탄자니아 주민들과 의료진을 위해 노력했던 마음과 열정을 이제는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동료 직원들을 향해 쏟고 있다. 임상병리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며 환자를 위한 책임감, 동료들을 배려하고 원 활히 소통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

### 탄자니아로 의료봉사를 떠난 계기는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혈액을 채취하고 검체를 검사하는 임상병리사로서 환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늘 책임감을 느껴왔다. 어느 날 우연히 아프리카의 의료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의료 취약 지역이 많고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무엇이든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때, 마침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탄자니아로 봉사를 떠날 임상병리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이때다 싶어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합격했다. 온라인 교육, 합숙 교육 등을 거쳐 2022년 11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6명의 팀원과 탄자니아로 향했다.

### 어떤 활동을 했는지

탄자니아의 최대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음바갈라 랑기타 투 병원의 임상병리실에서 근무했다. 규모는 큰 편이었지만 여건은 열악했다.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이 구분돼 있지 않아 검체 오염 가능성과 의료진 감염 위험이 컸고, 냉장고 등 설비도 노후돼 시

# 나의 네 번째 심장

울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웠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간다는 게 만지 않았다. 열여덟 살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말이다. 대뜸 의료진이 좋아하는 가수를 물었다. 울다가 열혈에 답했다. “2pm요” 곧 익숙한 노래가 수술실에 흘렀다. ‘Can you feel my heart beat~’ 어느새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심장이 고장 났다는 노랫말에선 큰 웃음도 터졌다. “가영님,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심장과 무사히 만나기를 바라며 곧 깊은 잠이 들었다.

**병원에서 알게 된 것들** 어릴 때부터 나는 유독 약한 아이였다. 금방 숨이 차고 기진맥진한 나를 두고 동네 어른들은 ‘애가 하도 기운이 없어서...’라고들 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움직이는 게 버거워졌다. 학교에 빠지는 날도 늘었다. 뒤늦게 찾아간 병원에선 비대형 심근병증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다. 방법은 심장 이식뿐이었다. 이식을 기다리며 열여덟 살의 여러 날을 집에서만 보내야 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 아픈 건 물론이고 적막한 무균실에서 혼자 있는 게 무서웠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도 처음이었다. 의료진이 건네는 인사와 농담 한마디가 기다려졌다. 사람의 온기는 하루를 버틸 용기가 되었다. 유리창 너머 할아버지 환자에게 톱툰 손 인사를 건넸다. 나름의 생존 신고이자 구호 신호였다. 침상에서 내려와 처음 걸었을 때 흠칫 놀랐다. 전혀 숨이 차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물 한 잔 먹고 싶을 때에도 ‘가기 너무 힘든데...’라며 한참 망설였었다. 하고 싶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였다.

**마음머저 숨 차오를 때** 누군가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아침저녁으로 면역억제제를 먹으면 위를 손톱으로 긁는 듯이 무척 아팠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위낙 밝고 눈치가 빨라 어디서나 ‘일 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해진 일과와 책임이 따르는 사회 생활을 지속하긴 어려웠다. 단념해야 할 것도 하나들 늘어서 누군가를 소개받으면 지레 ‘나는 심장이식을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며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하듯 설명했다. 그런데도 옆에 있어주는 남자를 만났다. ‘이 사람이라면...’이라는 확신에 결혼까지 결심했다. 다만 상대 부모님에게 승낙을 받기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관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이식 후 10년 만이었다. 재이식을 받아야 하니 빨리 입원해야 한다는 심장내과 김재중 교수님께 딱 한두 달만 버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결혼식 때문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식장에 혈관확장제를 들고 입장했다. 결국 부산으로 떠난 신혼 여행에선 잘 견디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쓰러졌다. “오빠, 나 이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조금 특별한 신혼 생활** 이식을 기다리며 기약 없는 입원 생활이 시작됐다. 남편은 주말마다 나를 보러 서울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이식된대?”라고 묻는 대신 “뭐 먹고 싶어?”라고 묻는 남편 덕분에 애뜻한 신혼 기분이 났다. 남편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으며 밀린 수다를 떠는 주말이 기다려졌다. 병동 사람들도 나를 “재덕”으로 불렀다. 남편 없는 평일에는 간식을 잔뜩 쌓아 놓고 의료진에게 나눠주며 소소한 재미를 찾았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라며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고 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도 있었다.



잘 지내다가도 불쑥 지치는 순간이 찾아왔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라며 우는소리를 할 때면 ‘저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감사한 거 아닌가?’ 괜한 심통이 났다. 또 나보다 나중에 온 환자가 “나 먼저 이식받으러 가요”라며 인사하면 조금은 부럽고 서운했다. 나를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자 의지가 됐다. 어느 날 수간호사님이 찾아왔다. “가영 씨 준비해요. 오늘이야!” 입원 생활 1년째, 드디어 이식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같은 날 함께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대답을 듣자, 심장을 기증한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기뻐던 마음이 미안함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제게 나눠주신 생명을 잘 관리해서 매일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선물** “교수님, 제가 일을 났어요.” 두 번째 이식 후 5년이 지난 지난해였다. 임신을 확인하고 김재중 교수님께 바로 연락했다. 심장에 타격이 있을까 봐 교수님이 늘 염려해 온 상황이었다. 그때마다 “교수님이 제 뒤에 계시는데 필요~” 자신만만해 했다. 실제로 임신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고 불안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생명을 신세 저 온 내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사실에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내가 만난 네 번째 심장이었다. 김 교수는 열여덟 살에 만난 가영이가 엄마가 된다며 항상 조심스럽게 살피고 주의할 점을 알려주었다. 반면 산부인과 원혜성 교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힘내야죠!”라며 파이팅이 넘쳤다. 두 분의 걱정과 응원은 결국 같은 마음이었다. 든든해진 마음으로 2024년 3월 20일 예준이를 무사히 품에 안았다. 한때는 ‘나만 왜 이렇게 아프지? 당장 내일의 나를 왜 걱정해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두 번의 이식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순간에 더 큰 감사가 있었다. ‘심장 이식 환자’로 설명되던 내가 ‘예준이 엄마’로 불리는 요즘, 매일 매 순간 가슴이 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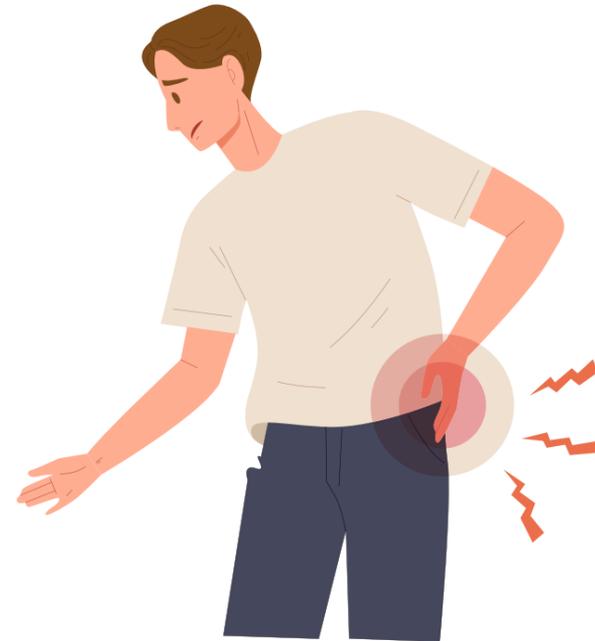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수술해야 할까요?



신경외과 **신홍경** 조교수



## 비슷하지만 다른 두 질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퇴행성 척추 질환이다. 두 질환은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과 증상이 다르다.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은 같지만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해 생기는 질환이며 나이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탈출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탄력이 저하된 디스크로 인해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디스크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 다리에도 방사통이라 부르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다리 근력이 약해지거나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약 2주간의 급성기 통증이 지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흡수되지 않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가 주요 원인인 퇴행성 질환이다. 척추를 둘러싸 보호하던 황색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후 환자에게 잘 나타나며 주 증상은 신경 기능 저하로 오래

걸지 못하는 '과행'이라는 보행장애다. 두 질환 모두 디스크와 황색인대라는 원인만 다를 뿐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유발되는 기전은 동일하다. 대부분 먹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약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나 시술, 마지막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 운동·약물·주사치료로 통증 완화 효과

수술없이 운동이나 약물, 주사 치료 또는 시술로도 통증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먼저 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효과 좋은 치료법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허리 근력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와 디스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을 줄여 주어 통증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관절과 황색인대의 퇴행성 변화도 늦출 수 있다. 약물 치료도 통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을 완화해 주는 약물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약물을 시도해 보면서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요법과 약물 치료로 뚜렷한 통증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나 시술을 고려할 수 있다. 눌러 있는 신경 주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둔화시켜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병의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반복 시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주사 치료와 시술 역시 침습적 치료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출혈 등 위험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을 권한다.

##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기본 개념은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 방법은 크게 감압술과 유합술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감압술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만 제거해 신경 압박을 감소시키는 수술이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상 피부와 근육, 뼈, 인대를 절개하고 병변에 접근하므로 수술 후에는 허리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유합술은 감압술을 시행한 후 허리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나사못으로 척추뼈를 고정해 유합하는 방법이다. 수술 부위는 튼튼해지지만 고정된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돼 인접한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인접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감압술과 유합술 모두 염증, 출혈 등 합병증 위험이 존재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술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면 운동이나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시술 등 비수술적 치료를 권장한다. 하지만 여러 비수술적 치료 노력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마비 증상, 대소변 장애 증상 등을 보인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신경은 한 번 심하게 손상되면 이전 상태로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 경과를 보고 어느 시점에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척추는 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구조물임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고의 간호를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외과간호팀 이정빈 사원

내가 근무하는 103병동에는 집중관찰실이 있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퇴원할 때까지 치료를 받는 곳이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만 아직 임상 경험이 많지 않아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되는 필수교육 중 하나인 '병동 집중관찰 교육'에 참여하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3일 동안 진행된 교육은 ▲호흡곤란·폐혈증 환자 간호 ▲심전도 분석 ▲혈액검사 결과 해석 ▲의식 저하 시 대처법 ▲중환자 의료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폐혈증 환자 간호 시뮬레이션이다. 이 교육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열이 내리지 않아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였는데 해열제를 투약해도 고열이 계속됐다. 교육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감염으로 인한 증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렸고 혈액검사 결과 폐혈성 쇼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습했던 것을 떠올리며 MET(의료비상팀) 의료진이 올 때까지 적절한 폐혈증 환자 간호를 시행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교육 덕분에 침착하게 내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대학생 때 배웠던 이론과 실제 임상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며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은 신규 간호사들에게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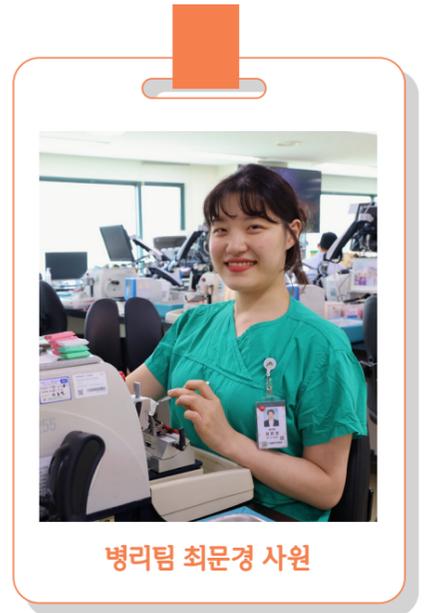
도움이 된다. 처음 겪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고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병동 집중관찰 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은 "어떤 환자, 어떤 질환이든지 미리 경험해보면 되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라며 응원을 해주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자리잡았다.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일이다. 회복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미묘한 상태 변화를 파악하며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나를 믿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럴 땐 가장 먼저 뭘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좋은 답변이 된 교육이었다. 환자가 우리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퇴원할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을 추천한다.



※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장 이야기'에서는 국내·외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병리검사의 매력”



병리팀 최문경 사원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조직병리 파트에서 검체를 현미경으로 판독할 수 있도록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생검 검체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에 관심을 가졌고, 흐릿하게 보이던 물체가 현미경으로 선명하게 보이던 순간의 만족감을 즐겼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 평소 즐겨보던 미국 의학드라마에서 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해 발암 여부를 확인하는 임상병리사의 모습에 매료돼 저도 임상병리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웃음) 그 다짐을 이룰 수 있어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검체 수도 많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처음 보는 유형의 검체를 만나면 선임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계속 공부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할 땐 속도와 정확성 모두 중요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의 장점은** 제 장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점을 찾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업무 중에 생기는 잘못이나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스스로 부족한 점과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늘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병리팀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퇴근 후 일상은** 입사 직후에는 업무에 적응하느라 휴일에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취미생활도 즐기며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경기나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즐기며 다시 에너지를 얻고 돌아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며 친해지는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업무를 하다 보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병리 검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병리 분야를 계속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체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체력을 모두 길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과정에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꿈을 이루는 마법의 비밀 '관계와 나눔'



어린이병원간호팀 이지현 과장

이 영화는 2005년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 세계관을 토대로 주인공 윌리 왕카의 과거를 다룬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왕카는 냉소적이고 은둔자적인 캐릭터로, 왜 초콜릿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거는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왕카>에서는 티모시 샬라메가 젊은 윌리 왕카 역을 맡아 순수함과 열정에 가득 찬 인물로 표현했다. 어떻게 초콜릿 공장을 세우고 백만장자가 됐는지, 옴파룸파와의 만남도 그리고 있다.

윌리 왕카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한 초콜릿을 만들어 디지털 성자인 '달콤 백화점'에 자신만의 초콜릿 가게를 열겠다는 꿈으로 안고 변화한 도시에 도착한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모자와 단돈 12소버린뿐이지만 특별한 마법의 초콜릿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다. 그러나 초콜릿 연합의 카르텔에 견제당하고, 여관 주인의 계략에 빠져 눈더미처럼 불어난 숙박비로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밤마다 초콜릿을 훔쳐 가는 '옴파 룸파'의 등장까지. 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왕카는 여관 주인에게 똑같은 사기를 당해 노동착취를 당하는 세탁소 직원들과 힘을 모은다. 고아 소녀 누들은 왕카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회계사 애버커스는 초콜릿 카르텔의 이중장부를 밝혀내고, 배관공 파이퍼는 하수도 구조를 꿰뚫고 있어 왕카가 초콜릿을 팔다 경찰에게 잡히지 않게 도와준다. 코미디언 래리는 성대모사로 위장 잡임을 돕고, 전화 교환원 로티는 적들의 전화를 가로채는 활약을 펼친다. 왕카가 모든 것을 잃고 추방을 당하던 순간에는 옴파룸파가 등장해 당당하게 맞서라고 응원

하며 왕카의 목숨을 구한다. 동료와의 긴밀한 유대와 초콜릿에 대한 열정으로 초콜릿 카르텔을 무너트리고 여관 주인도 벌을 받는다. 왕카가 낡은 성을 초콜릿 공장으로 키울 것을 암시하며 영화는 끝난다. 바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의 공장이다. 하늘을 날고, 춤을 추고, 진실을 말하게 하는 기상천외한 초콜릿을 만들며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유쾌한 동심을 만나게 된다. 더불어 왕카의 기발함과 순수함을 잘 살려낸 티모시 샬라메에게 '입덕'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뿐인 초콜릿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왕카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긴다. "초콜릿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초콜릿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이란다." 최고의 초콜릿을 만드는 비밀이었다. 우리는 환자들의 안녕과 회복을 위해 수많은 동료와 일한다. 직군이 달라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쓰는 건 분명하다. 왕카가 세탁소 동료들과 힘을 합쳐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변의 소중한 동료들에 감사하며 이 따뜻한 영화를 함께 나누고 싶다.



**왕카**  
 감독: 폴킹  
 배우: 티모시 샬라메 (윌리 왕카 역)  
 올리비아 콜먼 (스크러빗 부인 역)  
 칼라 레인 (누들 역)  
 장르: 판타지, 드라마  
 러닝타임: 116분  
 개봉: 2024.01.31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합주의 즐거움으로 일상을 다채롭게



내과간호2팀 최수진 주임



##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치원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오케스트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 그만두었지만, 이후에도 취미로 가끔 연주했었습니다. 입사 후 오케스트라 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즈음 지인 추천으로 '메리'라는 자원 봉사 단체의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는 특정 축제나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여 3개월 동안 준비해 색다른 공연을 선보입니다. 음악을 즐기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공연을 준비하니 즐겁습니다.

## 오케스트라의 매력은

오케스트라 활동은 바이올린 실력뿐 아니라 합주 능력, 박자 감각, 섬여림 등 다양한 음악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혼자 연습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어요. 단순히 악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사인에 따라 박자를 맞추고 연주의 시작과 끝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휘자와의 교감도 중요해요. 또한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첼로, 목관악기, 금관악기의 소리를 들으며 연주하기 때문에 곡을 보다 다채롭게 이해하고 모든 악기와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남산 팔각정에서 야외 공연이 예정되었는데 장마철인 데다 기상 예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휘자는 바깥 날씨를 살피고 단원들은 지하 대기실에서 비가 그치기만 기다려야 했어요. 모두가 지쳐갈 즈음 제2바이올린 단원들이 연주를 시작했고 다른 단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합주를 이어갔습니다. 지휘자는 없지만 완벽에 가까운 리허설 공연이 펼쳐져 가슴 벅쳤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합주 소리만 듣고도 박수를 쳐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후 화창한 날에 다시 공연해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 앞으로의 목표는

기회가 된다면 정통 오케스트라에 도전해 베토벤, 말러 같은 대작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고 싶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최수진 주임(왼쪽).



남산 팔각정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 병원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엄마와 아이 모두를 향한 진심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란성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고위험임신으로 처음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고지혜 교수님을 만났던 그날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말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정확하고 꼼꼼한 손길, 저와 남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위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장기입원을 해야 했을 때, 병동을 찾아와 교수님께서 담당하는 산모들을 한 명 한 명 살뜰히 챙기시는 모습에서 엄마와 뱃속의 아이 모두를 향한 교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자셨던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교수님을 향한 감사와 칭찬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실력과 책임감을 모두 갖춘 고지혜 교수님, 직접 저희 아이들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교수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산모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이 전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작은 노력이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모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께 주시는 칭찬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참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제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부인과 고지혜 조교수

※ '감사우체통'은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 암병원간호2팀 지영아 과장

지난 8월 15일자 병원보 표지에 담긴 우리 병원 공원 사진이 정말 좋았어요. 푸르름이 가득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공원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저도 짬이 날 때 가끔 공원을 산책하곤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보물인 공원을 병원보에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상시험센터 장지혜 연구코디네이터

'사람&이야기 - 생명을 구한 15분' 코너에 담긴 진단검사의학팀 윤상필 유닛 매니저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심정지 환자를 발견할 수 있지만 막상 눈앞에 상황이 펼쳐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윤상필 선생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 간호교육행정팀 정희수 주임

'나의 성장 이야기 -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코너가 참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갖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환자와 동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영양팀 안재영 주임

'나의 취미생활 - 내 삶의 일부가 된 마라톤'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취미생활은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삶의 활력을 일깨워 주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벼운 달리기에서부터 100km 완주까지, 진심으로 마라톤을 즐기는 모습이 멋집니다.

### 영상의학팀 황은혜 사원

'감사우체통 - 불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코너가 좋았습니다. 박창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 곁을 지키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SNS 돌보기

### [백세수업] 노년기 위 건강\_위축성 위염



출연: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

노년기 위내시경 검사에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으로 만성 염증이 지속되어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 위 점막 세포가 소장 또는 대장 세포로 대체되는 장상피화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만성 염증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위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 [건강플러스] 뇌졸중 시야장애의 치료



출연: 신경과 강동화 교수

뇌졸중 환자의 약 20%는 시야 장애를 후유증으로 겪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운전이나 독서 등의 활동에 불편을 느끼는데, 그동안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신경과 강동화 교수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비비드 브레인' 처방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플러스에서 시지각 학습 원리에 기반한 비비드 브레인의 기능과 효과를 알아봅니다.

